

예천군, 물돌이 마을과 충효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선비의 고장

경상북도 서북부에 자리한 예천군은 낙동강과 내성천이 빚어낸 아름다운 물길과 깊은 선비 문화가 어우러진 고장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물이 마을을 감싸 도는 신비로운 회룡포, 낙동강 마지막 주막 삼강주막의 낭만, 천년 고찰 용문사의 장엄함까지, 예천군은 자연과 역사,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숨은 보석입니다.

예천군, 어떤 곳인가

예천군은 경상북도 서북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안동시, 서쪽으로 문경시, 남쪽으로 상주시, 북쪽으로 영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면적 약 661㎢에 인구 약 5만 4천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낙동강과 그 지류인 내성천이 만나는 비옥한 평야 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천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맑은 물이 흐르는 고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천은 낙동강의 주요 지류들이 만나는 곳으로, 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사과와 포도, 참외 등 과일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예천은 '충효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많은 충신과 효자를 배출했으며,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예천 출신 인물들의 사회 각 분야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대한민국 양궁의 메카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다수 배출한 양궁의 고장으로도 유명합니다.

회룡포, 물돌이 마을의 신비

회룡포는 예천을 대표하는 절경으로, 내성천이 350도 휘감아 도는 물돌이 마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용이 몸을 틀어 승천하려는 형상이라 하여 회룡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명승 제16호로 지정된 국가 명승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돌이 지형으로 손꼽힙니다.

회룡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룡산 전망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까지는 약 20분 정도 산길을 올라야 하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 수고를 충분히 보상합니다.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내성천의 물줄기, 그 안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과 농경지,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산세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절경을 연출합니다.

계절마다 회룡포의 풍경은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복사꽃과 유채꽃이, 여름에는 녹음이, 가을에는 황금빛 들녘과 단풍이, 겨울에는 눈 덮인 설경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의 풍경은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회룡포 마을에는 나룻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을에는 몇 가구가 실제로 거주하

고 있으며, 전통 가옥과 농경지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을을 거닐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회룡포 여행의 묘미입니다.

삼강주막, 낙동강 마지막 주막

삼강주막은 낙동강변에 남아 있는 마지막 전통 주막으로, 약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내성천, 금천이 만나는 삼강나루터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쉬어가던 곳입니다.

삼강주막은 조선시대 주막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초가 지붕의 소박한 건물, 나무 평상, 장독대 등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도 막걸리와 파전 등을 판매하며 주막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막 앞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이 펼쳐집니다. 강변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강물을 바라보면 옛 선비들의 풍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해 질 무렵 노을이 물드는 풍경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입니다.

삼강주막 주변에는 삼강문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관, 생태공원, 야영장 등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 낙동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용문사, 천년 고찰의 장엄함

용문사는 예천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로, 신라 경문왕 때 두운선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깊은 산중에 자리 잡아 고즈넉한 분위기가 일품이며, 경내에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다수 있습니다.

용문사의 가장 큰 보물은 윤장대입니다. 국보 제328호로 지정된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넣어두고 돌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을 얻는다는 불교 건축물로,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시대 윤장대입니다. 정교한 목조 기술과 아름다운 조각이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모습이 경이롭습니다.

대장전 또한 보물로 지정된 건축물로, 윤장대를 보관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고려시대 건축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영산회상벽화 등 귀중한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용문사로 가는 길은 울창한 숲길이 이어져 드라이브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가을 단풍 시즌에는 절로 이어지는 길 양쪽으로 단풍이 터널을 이루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절 입구의 은행나무도 가을이면 노란 잎을 떨구며 운치를 더합니다.

초간정, 선비들의 풍류가 깃든 정자

초간정은 조선 중기 문신 초간 권문해 선생이 세운 정자로, 보물 제457호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금당실 계곡의 바위 위에 세워진 정자로, 맑은 계곡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독특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초간정의 아름다움은 자연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계곡 한가운데 솟은 바위 위에 정자를 세워 사방으로 물이 흐르도록 했으며, 주변의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선경을 이룹니다. 정자 안에서 바라보는 계곡 풍경은 마치 산수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조선시대 초간정에는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찾아와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정자 안에는 당시 문인들이 남긴 시와 글이 현판으로 걸려 있어 옛 선비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사색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초간정 주변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계곡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기에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석송령, 천연기념물 소나무

석송령은 예천군 감천면에 있는 수령 600년 이상의 소나무로,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 소나무가 자신만의 재산을 가진 나무라는 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모아 나무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고, 지금도 나무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석송령은 부채처럼 넓게 퍼진 수형이 특징입니다. 높이 약 10m, 가지 폭 약 30m에 달하는 거대한 소나무로, 마치 우산처럼 넓은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위풍당당한 모습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석송령 아래에는 정자가 있어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하며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나무 주변에는 전설과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어 석송령에 얹힌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생태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곤충 전문 생태원으로, 다양한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곤충 전시관, 나비 온실, 반딧불이 생태관 등이 있어 어린이들의 생태 교육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곤충생태원의 하이라이트는 반딧불이 체험입니다. 여름밤이면 반딧불이가 빛을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반딧불이를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나비 온실에서는 열대 나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곤충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해 곤충 만지기, 곤충 표본 만들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는 생태연못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천의 숨은 명소들

장안사

장안사는 예천 학가산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박하지만 고즈넉한 분위기가 매력적이며, 경내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탁 트입니다. 가을 단풍 시즌에 특히 아름답습니다.

명봉사

명봉사는 비봉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경내에 보물로 지정된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아 등산과 함께 사찰 탐방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예천온천

예천온천은 알칼리성 온천수가 솟아나는 곳으로,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 중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기에 좋습니다.

예천의 맛과 멋

예천 사과

예천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과 산지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기후가 사과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예천 사과는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가을이면 사과 축제가 열려 사과 따기 체험과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천 참외

예천 참외도 명성이 높습니다. 달고 아삭한 맛이 특징으로, 여름철 별미입니다. 예천 참외는 전국 농산물 품평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막걸리와 파전

삼강주막에서 즐기는 막걸리와 파전은 예천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 낙동강을 바라보며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의 낭만은 특별합니다. 예천에서 생산되는 전통 막걸리도 인기입니다.

한우와 산채정식

예천 한우는 청정 환경에서 사육되어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예천읍내에 한우 전문 식당들이 있어 신선한 한우구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산채정식도 별미로, 깊은 산에

서 채취한 산나물로 만든 건강한 한 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천의 사계절

봄의 예천은 꽃과 함께 깨어납니다. 회룡포 주변에 복사꽃과 유채꽃이 피어나고, 용문사로 가는 길에는 벚꽃이 만발합니다. 삼강나루터에서 봄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의 예천은 녹음이 우거집니다. 초간정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곤충생태원에서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예천 참외로 여름 더위를 달래보세요.

가을의 예천은 풍요와 단풍의 계절입니다. 회룡포의 황금빛 들녘, 용문사의 단풍이 절정을 이룹니다. 예천 사과를 수확하는 시기로, 신선한 사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겨울의 예천은 고요합니다. 눈 덮인 회룡포의 설경이 운치 있고, 삼강주막에서 따뜻한 막걸리로 몸을 녹이며 겨울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적한 겨울 풍경 속에서 사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천 양궁의 메카

예천은 대한민국 양궁의 메카입니다. 예천 출신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여러 차례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는 국제 대회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예천군은 어린 시절부터 양궁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는 일반인도 양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코치의 지도 아래 양궁의 기본을 배우고 직접 화살을 쏘아볼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 됩니다.

예천 여행 실용 정보

교통편

예천은 중앙고속도로 예천IC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30분, 대구에서 약 1시간 소요됩니다. 예천역에서 중앙선 열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외버스도 운행됩니다. 군내 이동은 자가용이 편리합니다.

숙박

예천에는 펜션, 모텔, 한옥 숙소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회룡포 주변과 삼강주막 인근에 숙박시설이 있으며, 용문사 주변에도 펜션들이 있습니다. 삼강문화단지에는 야영장도 있어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삶

예천처럼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곳을 여행하다 보면,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회룡포의 물돌이 풍경, 삼강주막의 낭만, 용문사의 고즈넉함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을 선사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깊은 시골 생활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환경과 도시의 편의성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규모의 도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처럼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주거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터전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천군으로의 초대

예천군은 물과 산, 역사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고장입니다. 회룡포의 신비로운 물돌이 풍경, 삼강주막의 낭만, 용문사의 천년 역사, 초간정의 선비 풍류, 그리고 달콤한 사과와 참외까지, 예천은 보고 느끼고 맛볼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물 따라 흐르는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때, 옛 선비들의 풍류를 따라 걷고 싶을 때,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싶을 때, 예천군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효와 풍류의 고장 예천군으로 떠나보세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